한국성서대학교 개교 70주년

KÓKKOS 4

2022 APR
VOL. 241

SINCE 1952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2022학년도 새학기가 힘차게 시작됐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복음관 앞 매화꽃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한 페이지를 남겨 본다.
왼쪽부터 이예원, 박수빈,이다빈, 송영서(이상 간호 2) 학우

2022 학년도 첫날 첫 시간, BRC 가 캠퍼스를 깨웠다

로고스홀 12 시 예배 회복, 불편한 대면수업도 감사

학우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활력 넘쳐

캠퍼스가 갑자기 밝아졌다. 3 월 7 일, 2022 학년도 1 학기 개강일. 아직 세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캠퍼스는 삼삼오오 짝지어 걷는 학우들로 생기가 충만하였다.

7 일 오전 8 시, 학기 첫날 첫 시간 BRC 가 캠퍼스를 깨웠다. 갈멜관 305 호에서 성서학과 신입생들의 BRC 연합예배가 우렁찬 찬양소리와 함께 울려나왔다. 코로나 19 의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낮 12 시 로고스홀에서의 예배는 경건하게 회복되었다.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의 감격과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다. 로고스홀에서는 신입생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학우들은 17 개 강의실에서 화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의실은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투명 칸막이가 좌석마다 설치돼 불편하지만 어렵게 대면수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교정은 아직도 한 겨울이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각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긴 완전히 봄이다. 고승태홀 로비는 그 사이에 모르게 변했다. 카페테리아와 북 스토어의 로비쪽 유리벽을 제거, 고승태홀과 한 공간이 되었다. 로비에는 53 개의 각양각색 좌석과 길고 묵직한 원목 테이블이 들어 앉았다. 오전부터 노트북을 켜고 열공 중인 학우들,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학우들, 따끈한 커피를 앞에 두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널찍한 공간이 오히려 비좁다.

그런데 ... 학우들의 최애 공간인 고승태홀이 슬며시 무대에서 밀리고 있다. 일립관 6 층 「로뎀나무 아래」 때문이다. 지난 겨울 내내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었다. 학업과 휴식, 재활의 시작점이다. 인테리어와 가구 하나 하나에 스토리가 있다. 색상과 모양도 같은 것이 없다. 다름 (difference) 과 조화 (harmony) 가 공존하는 곳이랄까. 학우들은 편하다. 성서대학답지 않게 고급 안마의자인 바디프렌드도 있어 슬며시 학우들의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원벤 (원형 벤치) 을 따라 앉아있는 학우들의 모습엔 구김살 없이 환하고 맑다. 갈멜관 앞 팔각정 벤치에서도 학우들이 햄버거 셋트로 점심을 먹고 있다. 떠들썩한 수다를 양념으로 둘러앉은 친구들 –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평생을 함께하는 최고의 친구들이길 바란다. 학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가던 상계백병원 직원이 학우들의 들썩거림을 보기 좋다며 엄지를 치켜든다. " 이게 진짜 학교지요 " 라고 말하면서.

학교 이웃들 " 이게 진짜 학교지요 " 나며 엄지 척!

미니설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고린도후서 12 장 10 절)

이민규 교수(성서학과)

문제는 용기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용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이 때로는 독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도 인간인지라 편할 때 마음이 해이해져 타락하기 쉽고, 힘들 때 오히려 신앙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정신 차리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신앙심을 키우는 약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는 환경이 오히려 보약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깊게 인식하면 " 힘들다 " 가 하나님의 " 힘이 들어 온다 " 로 변합니다.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무거운 짐을 버티고 견디다 보면 신앙에 근력이 생깁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에서 직접 배우는 길밖엔 없습니다.

「개교 70 주년 로고」 확정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서인의 사명을 역동적으로 담아

▲ 한 학우가 고승태홀에 마련된 로고판 앞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우리 대학교 개교 70 주년을 자축하기 위한 「개교 70 주년 로고」가 최종 확정되었다. 기획실은 지난 3 월 15 일 ~22 일까지 열흘간 3 가지 디자인 후보작을 교내 주요 포스트 7 곳에 배치하고 학우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1 번 디자인이 561 개를 획득, 개교 70 주년 로고로 최종 확정되었다. 조사에는 978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개교 70 주년 로고를 디자인한 차방진 디자이너는 "한국성서대학교 개교 70 년은 곧 밀알정신과 함께 한 70 년이다. 오직 말씀 그대로 일관해 온 성서대 70 년의 시간을 고딕의 강렬함으로 담아냈다. 7 개의 밀알과 십자가 보혈인 진홍빛을 통해 성서인의 정체성과 본질, 나아가 우리의 사명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드러낸다" 밝혔다.

「개교 70 주년 로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배치, 대내외 홍보 및 각종 행사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성서대학교 70주년 SINCE 1952

2022 년도 1 학기 성서학과 BRC 개강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 BRC 연합개강예배에서 박태수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2 학년도 1 학기 BRC(Bible Reading Class) 연합개강예배가 7 일 아침 8 시 갈멜관 305 호에서 열렸다. BRC 는 성서학과 1 학년의 필수과목으로 1, 2 학기에 걸쳐 매일 아침 8 시부터 9 시까지 창세기 1 장 1 절부터 요한계시록 22 장 24 절 까지 통독하는 과목이다.

박태수 교수가 '성경의 위대함'(시 19:7~11) 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강조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4 가지 귀한 축복을 경험케 한다. 첫째, 자신의 영혼이 주 안에서 소생함을 체험케 하며 둘째,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도록 동행해 주신다. 셋째, 읽는 자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며 넷째, 미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담겨진 성경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며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성서의 지체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대학의 궁극적인 교과서는 성경이다. 성경은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성경을 읽는 것은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같이 호흡을 하는 것과 같다. 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BRC 의 A 반(갈멜관 305 호, 30 명)은 박태수 교수, B 반(복음관 301 호, 32 명)은 최사랑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각 반별로 선배 조교 1 명과 조장 6 명이 1 년간 후배를 섬기며 헌신해 간다.

제 20 회 사회복지사 1 급 81% 합격

합격률 전국 평균의 2 배

졸업생 43 명 중 42 명 응시, 획기적인 일

지난 2 월 22 일 치러진 제 20 회 사회복지사 1 급 국가자격시험에서 우리대학 졸업자들이 81% 합격률을 기록했다. 졸업자 43 명 중 42 명 응시 (97.7%) 하고 이 가운데 34 명이 합격했다. 졸업자 중 1 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9.1% 이다.

이번 제 20 회 사회복지사 1 급 국가자격시험의 전국 평균 합격률 36.82% 에 비해 우리대학 학우들은 2 배 이상을 뛰어넘는 합격률을 보여줘 차별화된 전공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24,248 명이 응시하였으며 최종 8,882 명이 합격하였다.

제 38 대 리본 총학생회 인준식

잃어버린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 강우정 총장이 한혜원 회장에게 학교기를 건네고 있다.

리본총학생회 인준식이 8 일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인준식은 강찬희 총무의 사회와 강우정 총장의 인준장수여, 총학지원금 증정 및 이 · 취임사 순서로 이어졌다.

이임하는 37 대 한걸음총학 백민석 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의 19 의 어려움에서도 동참해준 임원들과 학우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2022 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성서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백민석 회장의 이임사는 총무 양승일 학우가 대독하였으며 백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38 대 리본총학 한혜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로 예배는 실종되고 신앙 상황은 약화되고 있으며 동료, 선후배 관계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 "리본총학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우들과 함께 하면서 관계 회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우정 총장은 한걸음총학으로부터 총학기를 받아 리본총학의 한혜원 회장에게 건네주었고 한 회장이 이 깃발을 받아 힘차게 휘두르자 참석자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새 총학의 출범을 축하하였다.

「로뎀나무 아래」 개관식

학우들의 학업과 쉼의 장소로 다가 가기를

▲ 로뎀나무 아래 개관을 환영하는 테이프 커팅이 진행중이다. (왼쪽부터 한혜원 총학 회장, 김정원 (성서) 교수 부장, 강규성 부총장, 강우정 총장, 최은희 학사부총장, 권순범 우리회 회장, 이성아 NSLB 교육지원 단장)

「로뎀나무 아래」 개관식이 7 일 오후 일립관 6 층 「로뎀나무 아래」 메인 홀에서 진행되었다.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의 사회로 김중완 행정본부장의 경과보고와 강우정 총장의 감사인사 및 커팅식 순서로 이어졌다.

강우정 총장은 개관 감사인사에서 "이곳은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 그리고 어루만지심으로 재기에 성공한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 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갖가지 압력에 지쳐 피곤한 삶에 놓인 학우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고 학우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씩씩하게 내딛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의 개관에 맞춰,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상징적으로 떡과 생수를 나누어 주었다. 개관식 리본 컷팅에는 총장을 비롯 보직자들과 리본총학생회 회장이 참여하였다.

교내에서 열린 FT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은혜"

3 월 14 일 ~16 일
김남국 , 송주현 목사의 기도 주제 설교

▲ 로고스홀에서 학과별 대항형식의 초성 맞추기와 다양한 게임 등이 진행 중이다.

2022 학년도 FT 가 3 월 14~16 일까지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주제는 '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 주제 성구는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FT 는 매 학년 초에 대형 기도원에서 성서공동체 모두가 2 박 3 일간 침식을 같이 하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성서대학의 이념을 되새기고 우리를 부르신 뜻을 확인하는 단합대회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2 년을 거른 후 갖는 FT 라 학우들은 기대감 반 , 호기심 반으로 FT 를 맞았다. 교내에서 그나마 한 장소에 모일 수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초청 강사들의 은혜스러운 말씀과 도전 , 총학의 빈틈없는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모임이 되었다.

첫째 날 , 김남국 목사 (마커스 미니스토리 지도 목사) 가 로고스홀에서 ' 기도의 능력 ' 의 제목으로 말씀하였다. 그는 " 기도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대화와 교감을 통해 내면의 나를 드리는 것 " 이라고 정의 하였다. 기도에는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하며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지가 나를 통해 인격적으로 드러날 때 기도는 완성 된다. 기도자는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습관화해야 한다. 성서 학우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은혜 충만한 대학생활을 이어갈 때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 송주현 목사 (더푸른교회 부목사) 가 ' 기도의 삶 '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갔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고민 앞에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기도의 촉매제이며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 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두려움과 고난을 물리치고 주님과 교제하며 영광 올리는 형제자매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CCM 가수 하니가 대표 찬양곡 ' 은혜 ' 등을 부르며 찬양간증으로 학우들과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학안내 , 학회 및 동아리 소개시간에 학우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며 공동체 시간에는 학과별 대항전을 통해 각종 퀴즈와 끝말잇기 , 게임 등으로 연대의식과 친밀감을 드높였다.

2 년 만에 대면 개강 ! 새 학기 힘차게 시작

2022 학년도 1 학기 개강예배 기쁨으로 드려

▲ 강우정 총장이 권면을 하고 있다.

2022 학년도 1 학기 개강예배가 7 일 12 시 로고스홀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2 년 만에 갖는 대면 개강예배이다. 학우들로 로고스홀 주변은 한동안 북새통을 이루었다. 박성환 일립교육과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가라 앉았고 예배자들은 첫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을 활기차게 불렀다.

이날 설교는 강규성 교목실장이 ' 벧엘 '(창 28:10~22)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중 주님을 만난다. 그곳을 벧엘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주께서 예비한 곳이다. 학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곳에 왔다. 여기가 우리의 벧엘이다. 여기서 주님과 만나고 , 대화하며 지혜와 지식이 충전해 갈 때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각자가 캠퍼스 안 어느 곳이건 자신만의 공간을 정하여 주님과 만남이 가능한 장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강의실의 한구석 , 로고스홀의 구석진 한 자리 , 어디라도 좋다. 여러분의 인생여정에서 ' 그곳이 대학시절 나의 벧엘이었다 ' 는 간증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권면을 통해 올해는 개교 70 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고 말하면서 " 우리 모두가 70 년 전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을 되새기고 그 목적에서 한 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한혜원 리본 총학회장은 2022 년을 대면으로 출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학우들이 합력해 선을 이뤄가는 복된 출발점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아프리카 GABON에서 온 바라마무두 (컴소 2) 학우

" 한국어는 넘기 힘든 장벽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

첫 학기 성적은 2.21 이제는 3.19 로 상승세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가봉에서 온 바라마무두 (컴소 2) 학우 . 3 년 전 입국 ,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를 수료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하였다 . 당시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다 . 지금은 일상 대화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 전공 공부가 만만치 않지만 번역기와 싸우며 따라가고 있다 성적도 첫 학기 2.21 이었는데 지금은 3.19 까지 올라 왔다 .

가봉은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 대서양과 접한 적도선상에 위치한 나라이다 . 면적은 한반도의 1.2 배 , 인구는 230 만 ,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다 .

Q. 어떻게 성서대에 오게 되었나 ?

친한 친구가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 다녔고 좋은 학교라며 추천했다 . 결정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선택했고 2019 년 9 월 입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Q. 수업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

초창기에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 자체가 백지 상태인 나에게 한국어는 넘기 힘든 장벽처럼 보였다 . 2020 년 2 학기에 시작된 1 학년 교양 수업도 정말 힘들었다 .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 매일 메모하고 번역기 돌리며 한국어를 붙들고 온종일 매달렸다 . 점차 입술과 귀가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고 지금은 일상 언어구사에 전혀 막힘이 없다 . 내 스스로를 봐도 대견스럽다 . 노력의 결과는 정직한 것 같다 .

Q. 전공은 잘 따라 가고 있나 ?

모국에서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이다 . 컴소학과에 영어가 많이 사용된 것도 학과 선택의 한 이유다 . 모르는 전공 용어나 단어를 메모한 후 번역기로 돌려 소화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 대면 수업 덕분에 친구도 여럿 사귀었고 어려운 전공과정도 잘 도와줘서 여러모로 감사하다 . 컴소학과 정해덕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었고 이호빈 학우의 마음을 다한 배려 도움도 큰 힘을 받는다 . 첫 학기 성적은 2.21 이었는데 지금은 3.19 이다 . 요즘은 학교 다니는 맛이 난다 .

Q. 예수를 믿는가 ?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 솔직히 지금도 말씀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 그래도 채플은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 전도반도 즐겁게 적응해 갈 것이다 .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

Q. 성서대에서 아쉬운 점은 ?

학교 내에 공지나 관련 정보가 모두 한국어라서 학교 내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 . 우리 학교도 외국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 중요한 Information 은 영어로 병기 되었으면 한다 . 또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Q. 평소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

수유리에서 친구와 자취하고 있다 . 이젠 쌀밥과 김치는 안 먹으면 이상할 정도다 .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 알바 외에는 전공 과제와 한국어 배우는데 집중한다 . 취미는 축구와 농구 , 여행인데 여건상 쉽지 않다 .

개인적으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싶다 . 영어나 프랑스어에 관심있는 친구가 있으면 상호간에 윈윈이라 생각하는데 글쎄 모르겠다 . 부모님은 " 한국이 안전한 국가라서 걱정하지 않는다 . 학업에 최선을 다하라 " 고 격려해 주신다 .

Q. 졸업 후 비전은 ?

네트워크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 . 졸업하면 한국 업체에서 3~5 년간 근무하고 가능하면 그 기간 중에 빅데이터 분야까지 배워보고 싶다 . 테크니션과 이론이 잘 조화되면 글로벌 IT 회사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

울진 산불 화재에 성서 온정의 손길을 모으다

리본총학 89 만원 모금 교회 2 곳 지원 예정

제 38 대 리본총학 (회장 한혜원) 은 3 월 초 발생된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경북 울진 지역 이재민 돕기 모금행사를 벌여 총 891,000 원을 모금하였다 .

모금은 FT 기간 중인 3 월 14 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였으며 모금액은 이번 산불로 교회가 모두 타버린 성내교회 (이희만 목사) 와 호산나교회 (장대근 목사) 에 각각 445,500 원씩 전할 예정 (4 월 둘째 주간) 이다 .

경북 울진지역 산불은 지난 3 월 4 일 처음 시작돼 열흘간 지속되면서 산림지 피해만 1 만 6301ha, 에 달했고 건축물과 축사 , 창고를 비롯해 농기계 등이 불에 타며 발생한 피해액만도 1700 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혜원 회장은 "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돕고 섬기는 귀한 일에 아름다운 손길로 사랑을 전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 고 말했다 .

총학이 지원하기로한 두 교회는 해당 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 소개 받은 교회이다 .

교수학습센터 조연직 연구원 임용

교수학습센터에 조연직 연구원이 임용되었다 . 조연직 연구원은 성신여대 법학과 졸업 후 한양대 교육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단국대에서 교육공학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진행중이다 .

조 연구원은 비교과 교육용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대학어린이집 원장 지주나 원감 승진 임명

‘지역 사회 내에 본이 되는 어린이집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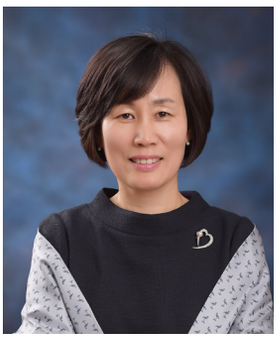
지주나 원감이 대학어린이집 원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 지주나 원장은 본교 영유아보육학과(2007 년) 졸업 후 보육대학원(2014 년)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지 원장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주임 및 원감으로 16 년간을 근무해 왔다 .

지 원장은 " 청지기로써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기겠다 . 대학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내에 본이 되는 어린이집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42 개 위원회 위원장 , 위원 임명

교수 , 평균 4 개 위원회 참여
최은희 학사부총장은 18 개로 최다

▲ 강규성 부총장



▲ 최은희 학사부총장

2022 학년도 교내 42 개 각종위원회의 위원장과 해당 위원이 3 월 30 일자로 임명되었다 . 위원회는 총장직속 12 개 위원회 , 일립대학 17 개 , 대학원 4 개 , 입학 · 학업지속지원본부 3 개와 일립행정본부 6 개 위원회 등 모두 42 개 위원회이다 .

지난 해와 비교해 10 개 위원회가 축소되었고 3 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신설된 위원회는 인권센터위원회 , 진로심리상담센터운영위원회 , 지역사회임팩트센터운영위원회이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사보직 및 위원간의 호선 등을 감안해 임명되었다 . 위원 중에는 외부인사도 17 명이 임명되었고 10 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 교수들은 평균 4 개 위원회의 위원 혹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은희 학사부총장은 6 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12 개위원회의 위원 등 모두 18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규성 부총장이 14 개 위원회 (위원장 5, 위원 9) 의 직분을 맡고 있다 .

42 개 위원회와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괄호는 위원장 .

◈ 총장직속 (12 개)

▲ 신학 ▲ 교무 ▲ 대학발전 ▲ 기금운용심의회 (이상 강우정 총장) ▲ 대학평의원회 (박종걸 경성교회 담임목사) ▲ 등록금심의 ▲ 대학혁신사업 기획 TFT ▲ 산학협력단 운영 (이상 강규성 부총장) ▲ 대학소통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 대학자체평가 (임지영 평가감사실장) ▲ 성과관리 (김희수 성과관리실장) ▲ 기관생명윤리 (김조자 초빙교수)

◈ 일립대학 (17 개)

▲ 교원양성 ▲ 학사관리 ▲ 교육과정 ▲ 온라인강좌운영 ▲ 일립 · 기초교양교육 ▲ 장애 및 학생복지지도 ▲ 교육과정정책자문 (이상 최은희 학사부총장) ▲ 위기학생안전망 (NSLB) 운영 (이성아 NSLB 교육지원단장) ▲ 교수학습센터운영 (윤혜진 교수학습센터장) ▲ 진로심리상담센터운영 (최사랑 진로심리상담센터장) ▲ 취창업지원센터운영 (박성범 취창업지원센터장) ▲ 지역사회임팩트센터운영 (안정선 지역사회임팩트센터장) ▲ 비교과교육 (이성아 비교과교육단장) ▲ 장애학생지원 (김형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 인권센터 (배진형 인권센터장) ▲ 학술연구심의 (오윤선 기초교양교육과장) ▲ 교원인사 (강규성 부총장)

◈ 대학원 (4 개)

▲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운영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운영 ▲ 특수대학원 운영 (조혜경 대학원장)

◈ 입학 · 학업지속지원본부 (3 개)

▲ 대학입학전형관리 ▲ 선행학습영향평가 (이상 최육열 입학 · 학업지속지원본부장) ▲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한진호 기초교양교육과)

◈ 일립행정본부 (6 개)

▲ 직원인사 ▲ 연구실안전관리 (김중완 일립행정본부장) ▲ 정보보안심사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 공간관리 (강규성 부총장) ▲ 도서관운영 (유정선 성서학과 교수)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운영 (김중완 평생교육원장)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The Card Players 1890-1892)

폴 세잔 (Paul Cezanne 1839-1906 년)

https://collection.barnesfoundation.org/objects/6992/The-Card-Players-(Les-Joueurs-de-cartes)/

이 그림은 필라델피아 반스 파운데이션 (Barns Foundation) 1 층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입장권을 사고 미술관 정문을 넘어서면 넓은 홀이 나옵니다. 홀 구조는 입장객들이 홀에 걸려 있는 그림을 먼저 보고 입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 쪽 벽면 아래 비교적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잔이 그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의 여러 작품 중에서 이 그림에 등장 인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림의 안정적 구조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인 분위기 속에 드러난 깊은 색채와 그 색채의 명료함이 돋보입니다. 더 돋보이는 건 그림 전면에 보이는 서랍의 손잡이에서 벽에 나란히 걸려 있는 파이프까지 길이입니다. 원근에 의한 단순한 눈 속임이 아니라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6 번째 등장인물이 되게 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장을 끼고 멀리 벽에 기댄 사람처럼 책상 앞에 서서 저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건 젊은 청년의 어깨 너머에 자리한 검은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동생일 수도 혹은 연인일 수도 있는 여자의 얼굴은 심각해 보입니다. 수염을 기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패를 보고 있는 청년의 심각함 보다 여자의 심각함이 더 커 보입니다.

폴 세잔은 파리를 떠나 고향인 엑상 프로방스 지방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잔은 학습으로 익혀진 방식과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익숙해진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움에는 좀 더 깊은 색채와 빛이 비쳐지는 색채 속에서도 사물의 명료함을 상실하지 않고 보이는 대상의 깊이를 그려내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잘 드러난 그림이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쥔 자기 카드를 바라보는 그들의 엄숙함은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의 엄숙함 만큼 심각해 보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머리를 깎듯이… 그림 속의 정막과 엄숙함이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2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5,200,000원)

동문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1,000,000	/	안선례	1,000,000	/	햇살종합건설(대표 이영수)	1,000,000	/	벧엘선교회	1,000,000
임경택, 권정인, 손민경	200,000	/	김남주, 허영숙, 조남경, 강주옥, 송향숙, 윤정원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13구좌, 연간 납입 1,560,000원)

교직원 및 가족	5구좌	김희수, 안정선	/	3구좌 윤혜진

일시납 누계(2022. 3.1~3.22) 5,200,000원 **약정자 누계(2022.3.1~22) 13구좌 (연간 납입 총액 1,560,000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총장 백서(白書)

며칠 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총협) 사무국 실무자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 강 총장님의 사총협 부회장 임기가 오는 4 월 7 일로 만료되는데 재선임해도 되겠느냐 " 는 것이었습니다. 협의회의 관례상 총장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연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묻는 이유는 오래 했으니 이제 자리를 양보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사총협은 한국의 153 개 4 년제 사립대학 총장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리더 그룹인 회장단의 임기는 2 년입니다. 저는 2010 년 4 월 선임되었으며 올해 4 월이면 꼭 12 년, 2 년 임기를 6 번 연임하였습니다. 사총협 역사상 최장수 부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총장 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2001 년 부터입니다. 당시 대교협의 리더로 활동하던 친구 총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대교협 감사로 선임된 것이 시초입니다. 대학 총장 사회도 여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대학의 크기, 명성이 이너 (inner) 서클에 진입하는데 필수 요건이었는데 총장 1 년차 새내기 총장이 감사라는 중책을 맡자 모두들 의아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맡겨진 일이니 최선을 다하자고 작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모든 회의에는 꼭 참석하였고, 오늘 회의에서는 무슨 발언을 할까도 항상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역할만은 다부지게 하자는 욕심으로 임하였습니다. 보통 임의 단체의 감사보고는 형식적인 것이 관례이지만 저는 눈 딱 감고 집행부와 사무국의 회계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총회장에서는 신랄하게 감사 보고도 하였습니다.

부회장 직임도 다른 의미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가끔 이젠 그만 둬야지 하다가도 소규모 대학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눌러 앉곤 하였습니다. 좋은 기회였고 또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3 월 말 사총협 부회장 연임 (連任) 을 사양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20 여 년 동안 대학총장 사회에서 작은 역할이나마 담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직원 컬럼
여진희(법인사무국)

못 말리는 하나님

초등학교 2 학년 때 전학을 간 학교에서 첫 짝꿍이 내게 말했다.

" 진희야. 일요일에 내 따라서 교회 안 갈래 ?"

" 교회 ? 거가 머하는데고 ? 어딘데 ?"

나는 그렇게 주님과 만났다. 그분은 40 여 년간 나의 삶을 간섭하며 예비하셨다. 내가 구하는 것을 쉽게 잘 주시다가 때론 절대 주지 않을 때도, 그러다보니 내가 붙여놓은 별명이 하나 있다.

' 못 말리는 하나님 !'

주님은 나에게 못 말리는 하나님이시다. 며칠 전 자동차로 출근하면서 ' 하나님 오늘 늦잠자서 도시락도 못 쌌어요. 저 점심 어떻게 먹죠 ?' 무심코 주절주절 했었다. 그런데 점심 채플 드리고 나니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닌가 ? 받아들면서 맘속으로 외쳤다. " 아 진짜, 못 말려…! "

성서공동체 일원이 되기 전 7 년간 일하던 학교를 그만두며 하나님께 1 년만 쉬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며 1 년이 다 되어갈 무렵, 면접 보자는 곳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슬슬 불안해져 갈 즈음 성서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기도드린 지 1 년만의 일이다.

뒤돌아보면 이전에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 오랜 시간동안 일반기업에서 근무해오다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다. 그곳에서 배우며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일들…. 돌이켜보니 성서에서 일하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를 집에서 1 년간 돌보게 해 주셨다. 그리고 서원했던 1 년이 지난 후 다시 직장도 주셨다. 게다가 겸손하게 급여까지 기도 그대로 어찌 그리 딱 맞춰 주시는지…. 정말 못 말리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흠…. 그런데 다음부터는 무언가 바랄 때 조금은 덜 겸손하게 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내 삶 곳곳에, 아주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깨알 MSG 도 뿌려주시는 나의 이 못 말리는 주님을 나는 항상 널리 자랑하고 싶다.

교수 컬럼
이슬기 교수(기초교양교육과)

애통하는 기도의 힘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성경 느헤미야가 저에게 기도의 힘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느헤미야는 일과 신앙의 균형을 매우 잘 맞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성공시켰고, 무너진 성벽 또한 재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애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에 4:3)

에스더서에는 유다인들이 민족을 위해 크게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고,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위로함을 얻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바쁜 일상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한국성서대학교를 허락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기대합니다.

외래교수 컬럼
윤혜진 교수(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7살 아들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자세

나의 7살 아들은 이따금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로 사망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뉴스를 보던 날이다.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세요." 평소에는 나쁜 꿈보다 좋은 꿈, 즐거운 꿈만 꾸게 해 달라고 본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녀석이었다. 뉴스가 생각났는지 그들을 살려 달라며 기도한 것이다. 순간 웃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고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본인 기도에 만족해 하는 아들에게 사실대로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말해줄까 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 여기고 있는 아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아들은 엄마나 아빠가 이런 기도를 말해준 것도 아닌데, 여러 상황을 기억해 놓고 하나님께 부탁한다. 올림픽 기간에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게 해 달라고, 산불 났을 때는 빨리 꺼지게 해 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어린이의 믿음이지만 대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들은 선수에게 힘을 주실 분, 산불까지 사라지게 하며 전쟁도 멈추게 할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아는 듯하다.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라고 묻자, 망설임 없이 "당연하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옆에서 내 기도 다 듣고 계시지!" 물론 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루시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대로 응답해 주시며 지금도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 상황을 살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를 7살 아들로부터 배웠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성경을 읽을 때

미국 사람들이 무료로 보급해 준 파란 성경책을 책가방에 넣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때? 란 나름 인생의 질문을 문학에서 찾지 못하고 종교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싶었던 시절을 말합니다. 중학교 모자를 벗고 제 머리보다 큰 상급학교 모자의 앞창을 꾸겨 쓰고 추운 겨울에도 바지 구겨지는 게 싫어 내복도 안 입고 다니던 시절, 제일 궁금한 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였습니다. 죽을 만큼 추웠지만, 또래 가운데 폼 잡겠다고 다니던 시절, 왜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 읽기에서 얻은 건 '거짓' 입니다. 제게 성경은 거짓의 책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장면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 14:25~29)" 이해 불가의 장면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런 거짓을 믿으라고 ...

C.S Lewis '기독교적 숙고' 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바다를 그것도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었다는 사실을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한 이유가 특정 사건, 다시 말해서 계속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지만, 바다를 계속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은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점을 믿음이 적고 의심하였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자신의 이해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거짓이라 여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고 영혼의 양식이 되었는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성의 작동이 멈추고 다른 작용이 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이성은 작동했는데 어떤 강력한 힘의 역사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제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가르쳐준 성령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 이성이 판단할 부분과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성이 독재자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죽이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자신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여 달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93

나 비

이준관

들길 위에 혼자 앉은
민들레.

그 옆에 또 혼자 앉은
제비꽃.

그것은
디딤돌.

나비 혼자
딛
고
가
는

봄의
디딤돌.

https://blog.naver.com/leesr2006/220973380294

봄이 내려앉은 자락마다 꽃이 피어난다. 꽃마리 봄까치 냉이 민들레 제비꽃... 아담한 우주가 쉬임 없이 피어난다. 나도 질 새라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소담한 우주가 하늘을 활짝 열고 있다. 아! 그런데, 피어나는 그 꽃이 나비의 디딤돌이라니...

그러기에, 우리가 이 봄에 활짝 피어나야 할 이유 한 가지, 우리 모두 디딤돌 되기! 우리를 딛고 나비가 날고 벌이 날아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등을 내어주기. 언젠간 우리의 디딤돌에도 튼실한 열매가 맺힐 날이 기다리고 있을테니...

대학
어린이집

영아반 적응 프로그램

▲ 영아반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가 놀잇감을 탐색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은 3 월 2 일 ~ 25 일까지 영아반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A 반과 B 반으로 나눠 안전한 규정을 준수하며 이어졌다. 1 주차는 영아들이 부모님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 놀잇감과 환경을 탐색하며 시간을 보낸다. 낯선 공간에 긴장함도 있었지만 학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놀잇감을 탐색하고 적응해가는 모습도 보여줬다. 2~3 주차는 학부모와 분리돼 교사와 함께하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영아가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교사와 애착을 쌓고 놀이하는 가운데 점차 안정감에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영아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환경 안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가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밀알반 김누리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 고립가구 위기지원

▲ 격리중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을 위한 비상용 구호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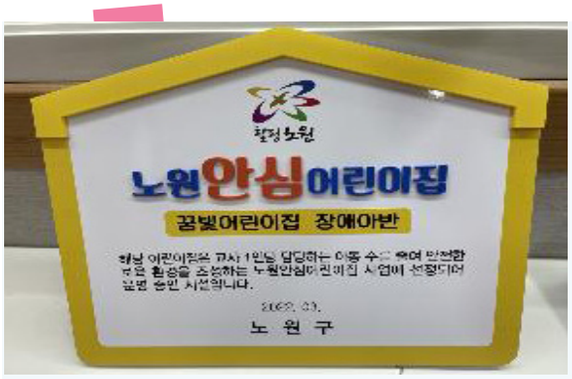
우리 복지관은 3 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재택치료 및 격리중인 고립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제보 및 유선을 통한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복지관은 필요한 물과 식사, 비상약을 구호키트로 배달하고 고령자 독거 어르신의 경우 매일 건강상태까지 점검한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주민은 52 명에 달한다. 부족한 재원은 추후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지원할 예정이며 호응도를 고려, 관내 9 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대시켜 380 명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은 " 외출이 금지돼 음식을 할 수도 없었다. 복지관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약과 생필품 등을 지원해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 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주민을 지역사회 안에서 도우며 일상 회복이 잘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김선화 선임과장**]

꿈빛
어린이집

노원 안심 어린이집 선정



▲ 노원구청으로부터 선정된 노원 안심 어린이집 간판

꿈빛 어린이집이 노원구청으로부터 ' 노원 안심 어린이집 ' 으로 선정되었다.

' 노원 안심 어린이집 ' 은 보육교사 1 인당 아동비율을 축소, 좀 더 쾌적한 놀이공간 및 돌봄 환경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보육교육을 이뤄내는 목적을 담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0 세반과 장애반 및 만 3 세반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꿈빛어린이집은 집중적 보살핌이 요구되는 장애아반이 선정되었다. 장애아반은 교사 1 인당 3 명에서 2 명으로 완화돼 개별적인 맞춤 보육 등이 용이해졌다.

이번 선정으로 지원받게 될 운영비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 구입과 급식, 간식비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 노원 안심 어린이집 ' 선정으로 교사와 아동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보육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나리반 전보람 교사**]

성서
대학교회

사랑의 상자

▲ 코로나로 격리 중인 성도들에게 전달된 사랑의 상자

성서대학교회는 3 월부터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생활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의 섬김을 나누기 위한 ' 사랑의 상자 ' 를 보내 주고 있다. 사랑의 상자는 기본적인 찌개류, 참치 및 햄 종류 그리고 초콜렛과 일반 가공식품으로 구성됐다. 박스에는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받게 될 심리적인 위축과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켜 예전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의 심신이 건강히 유지되도록 지켜 보호한다는 믿음까지 담겨져 있다.

사랑의 상자는 성서대학교회 성도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낸다. 많은 이들이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위로까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코로나 –19 놀이키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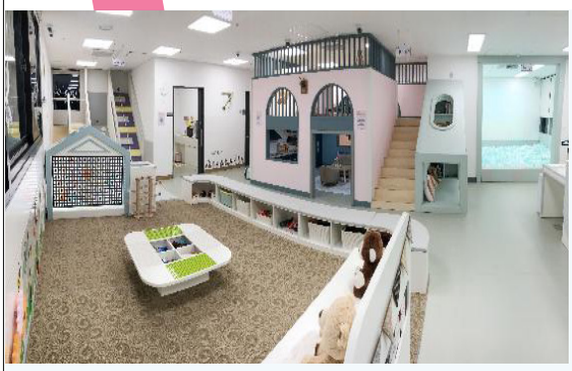
▲ 부모와 영아가 집안에서 생태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과 밀접접촉으로 격리 중인 영유아 숫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가장 흥미를 보이며 경험해 본 놀이 (오감놀이, 생태놀이, 애착증진놀이) 중 하나를 선정하여 격 주마다 가정연계 놀잇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선정된 놀이키트는 코로나 19 로 격리중인 영유아에게 제공, 보육교육의 연속성을 높여준다.

학부모들도 놀이키트를 통해 자녀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놀이 진행 과정에서 느낀 교육 효과를 키즈노트에 적어 사진과 함께 보내주었다. "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가정에서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매우 감사하다 " 며 만족하다는 소감을 전해왔다. [**맑은반 용혜수 교사**]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9 호점 개설 _ '하계 1 동 도담도담나눔터'



▲ 하계 1 동에 마련된 도담도담나눔터 내부 전경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 월 21 일부터 공동육아방 9 호점 ' 하계 1 동 도담도담나눔터 ' 운영을 시작했다. 장소는 하계어울림센터 1 층에 자리하고 있다.

머리카락 휘날리며 신나게 내려올 미끄럼틀, 엄마와 공놀이 할 수 있는 볼풀장 등 신체놀이공간 등이 마련됐다. 마트와 캠핑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앙증맞은 놀잇감이 역할놀이까지 가능하며 기존 나눔터와 달리 따뜻한 색감과 디자인이 잘 조화된 공간도 매력적이다. 공동육아방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 공간으로 만 5 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가 해당되며 요금은 무료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가능하다. 영유아들의 놀이장소는 물론 부모들 간 소통과 정보교환, 보육반장과 연계한 육아고충 상담 등도 진행된다. [**보육전문요원 성은경**]

상계 5 동 어린이집

오승록 구청장, 상계 5 동어린이집 방문

▲ 오승록 구청장과 교사들이 보육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7 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 노원 안심 어린이집 사업 ' 에 선정된 상계 5 동 어린이집을 방문 샛별반 아이들 및 교사들과 만났다. 오 구청장은 " 유아들이 공간을 넓게 쓰면 창의력은 물론 보육의 질 등 여러 면에서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신화영 장애통합팀장은 " 개별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마다 목표를 다르게 설정한다. 기존보다 적절하고 가정과 소통이 훨씬 더 긴밀해졌다" 고 말했다.

' 노원 안심어린이집 ' 은 교사 대 아동비율은 1:2 로 완화시켜 어린이들의 활동 면적이 확장되면서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비장애 아이들 중에 발달이 어려운 유아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학부모들도 보육 환경이 향상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예쁜 꽃잎반 유정현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노원안심어린이집 선정 !

▲ 노원구청으로부터 선정된 노원 안심 어린이집 간판

늘사랑어린이집이 노원구청에서 진행하는 2022 년도 노원안심어린이집에 선정되었다. 안심어린이집이란 ?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 한정된 어린이집 내 공간을 넓게 활용, 더욱 향상된 보육의 질을 이뤄내기 위해서다. 만 0 세 영아들의 경우 개월 수에 따라 개별적인 발달 목표가 다르다. 교사 비율이 낮으면 2 명의 교사가 4 명을 돌보게 돼 보다 섬세한 관찰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보육 효능감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1 년 단기로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학부모와 소통까지 원활해져 상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지는 정책으로 교사, 아이, 부모가 모두를 반겨주는 사업이 앞으로도 더 지속되길 희망한다. [**늘사랑반 이효빈 주임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2년 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선교기부금	887만원(선교)
임성일(성서대학교회)	795만원(운영)
김은호(성서학)	515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380만원(운영)
유한재단	342만원(장학)
강우정.강진(총장)	320만원(운영)
아산사회복지재단	300만원(장학)
평안교회(황연호 목사)	300만원(장학)
연재장학재단	250만원(장학)
한국장학재단	200만원(장학)
벧엘성서동우회	105만원(운영)
안선례(대학원 12회)	102만원(운영,장학)
햇살종합건설	100만원(장학)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신용 김노아 김병렬 김종숙 도 만 백해송 서유미 손윤숙 이복희 주영덕 채종원 최진희
2구좌 이은애 홍혜주
3구좌 서성숙 이길순 장혜란 최양서
5구좌 강경옥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권순길 김은주 박재숙 신연정 양은성
2구좌 송동식 여경숙 이진아 정영숙 천광호 함은애
5구좌 박선희

부설기관
5구좌 박연희
10구좌 권정아

서문교회
1.5구좌 정찬수

성서선교회
3구좌 태광성서교회
8.3구좌 벧엘성서동우회
10구좌 김용철

일 반
2구좌 김동석

단체 및 기관
2구좌 열방교회
30구좌 한민제일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수진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해 강정민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수연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성은 송순덕 송원복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찬미 오찬양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지성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유민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열매맺는교회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구연민 국소영 권지연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예진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상수 박재송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성경 신정섭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상복 이상진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우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이충희 이한나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장재경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혜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황보혜영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민주 김석환 김윤정 남정부 민승철 박기혁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신연정 안정민 양연선 유아랑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장영훈 장혜란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조하은 최광희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최은희 탁현정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기부자 명단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장효정 정예나 천유림 최송희
허성희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남주 김동관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윤정원 이기훈 장명헌 조남경
11만원 강주옥 송향숙 유선미 허영숙
20만원 손민경 임경택
21만원 권정인
50만원 김동우
100만원 이례장학/햇살종합건설
102만원 안선례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혜미
류한나 박대종 선동하 선유정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엄미자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전명자
1만5천원 반우형
2만원 김은혜 김형태 박재숙 박혜숙
서성식 이마리 이성령 이영림
전옥순 홍은선
3만원 김재임 박인순 배정숙 이종권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정미영
6만원 안태유
20만원 차진숙

교직원 및 가족

5천원 권경만 권순범 김미숙 김병수
김봉재 김 희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이은영
1만원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지성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양승원
윤명섭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희주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조철남
허윤민 황은숙 요시다고조
1만5천원 윤혜진 임수아 진달래 하희수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윤정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김진순 박은주
박태용 안 호 오철송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2만5천원 김은실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전영호 정은상 정지용
3만원 권오섭 방진희 추연진
3만5천원 박성범 박인혁 신재윤 여진희
이상일
4만원 양희정
4만5천원 김덕원
5만원 김성호 김원빈 장정순
5만5천원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이호섭
6만원 이성아
7만5천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은주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신금주 장성희 최사랑 최육열
12만원 최지은 김웅기
14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희수 이한영
18만원 김덕현
20만원 김창원 김태규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조윤경
21만원 정휘진
24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30만원 최선희
100만원 홍설자
320만원 강우정.강 진
515만원 김은호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지은 이다솜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2만원 김민경 이가연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태연 김현애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탁지혜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권정아 박연희 이인경 장수진
전안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화영 안미희 차 건
20만원 김신덕
3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장은경
3만원 장석원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9천원 이 천 정현숙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권정화 김겸일
김경숙 김덕현 김동석 김배열
김사천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은미 김인영 김정숙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혜련 김혜진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이숙 박주형 방미경 서영우
서윤희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양태환 오종철 윤도진
윤재필 이경미 이관영 이길우
이대우 이봉호 이소정 이승림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장홍림 전옥순 정갑순
조범근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2만7천원 김영헌 유상호 유은주
3만6천원 김민자 김성진 김인자 김일선
김춘환 박 선 박선하 박성환
박은유 박은선 선경혜 양천식
오은주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이승우 장진희
4만5천원 고미숙 김동준 박태수 유형창
임철순
5만4천원 김문응 김영오 김원태 김은혜
김현석 민윤옥 송재철 이숙영
진명순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이병윤 이정임
임성일 전명진 최강희 최대만
최순남 최정권 한진호
12만원 김동수
14만원 김웅기
54만원 허에스더
380만원 성서대학교회
795만원 임성일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
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105만원 벧엘성서동우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효숙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류계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보경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윤수현 윤준영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행복한교회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서미혜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정동환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날
/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주영광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어린양교회
/우리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상일교회/예일에드컬
/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수봉산교회/제자선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20만원 (주)소원기건
50만원 동서환경(주)
90만원 한민제일교회
100만원 교수부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200만원 한국장학재단
250만원 연재장학재단
3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평안교회
342만원 유한재단
887만원 선교기부금

소계(20210221~20220320)
80,200,110
누계(20210301~20220320)
33,215,600